

주요 국가의 국토정책 최신 동향시리즈 ①

일본의 '미래개척전략'과 시사점

이동우(국토연구원 수도권전략센터장)

- 일본의 아소 정부는 2009년 4월 17일, 일본의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을 담은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 공표
 - 특히 2009~2012년의 초기 3년 동안 중점적·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를 반전시킨 다음 지속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J자형 경제성장'(J Recovery) 달성 도모
- 단기적으로는 작금의 세계동시불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현명한 투자' 전략 제시
- '현명한 투자'의 대상 분야로 (1) '저탄소혁명', (2) '건강·장수', (3) '매력 발휘'의 세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미래상과 중점프로젝트 제시
- '미래개척전략'의 추진을 통하여 2009~2011년의 3년간 누계 40~60조 엔(약 560~840조 원)의 수요창출과 140~20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2020년까지의 실질GDP 증가액은 120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일본 정부의 '미래개척전략'은 작년(2008)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포된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맥락을 같이함
 - 양국이 공통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문제인식 공유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환경·자원·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므로 보다 녹색성장 실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 창조적 경쟁력 강화 필요

※ 자료: 본 브리프는 2009년 4월 17일 일본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발표한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을 요약한 것임. 아소 내각총리대신의 지시에 의하여 마련된 전략으로, 내각부와 경제산업성 이외에 내각관방,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총 11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1. 일본 ‘미래개척전략’의 공표 배경

- 일본의 아소 정부는 2009년 4월 17일, 일본의 중장기 국가성장전략을 담은 ‘미래개척전략’(J Recovery Plan) 공표
 - 특히 2009~2012년의 초기 3년 동안 중점적·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를 반전시킨 다음 지속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J자형 경제성장’(J Recovery) 달성 도모

● 세계동시불황의 극복

- 세계금융위기에 의하여 촉발된 작금의 세계동시불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불황으로서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통합적 세계경제하에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일치단결하여 대담한 내수 진작책을 동시에 추진함이 긴요
- 특히,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조기 경기회복 및 새로운 성장궤도 진입은 아시아 경제,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불황탈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현명한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경기회복 이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요법적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
 - ① 첫째, 미래의 국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국민 전체가 이를 공유
 - ②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의 설정 및 가속적 실행 추진. 특히 2009~2012년의 초기 3년 동안 중점적·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기를 반전시킨 다음 지속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J자형 경제성장’(J Recovery) 달성 도모
 - ③ 셋째, 프로젝트는 경제효과가 높은 것, 사회적 의의가 큰 것, 국가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
 - ④ 넷째, 불황 탈피 이후 동아시아와 동반성장함으로써 세계경제 견인. 새로운 미래형 경제산업구조 및 사회적 문제해결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
- 경기대책으로서의 단기적인 수요 진작과 장기적 경제성장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이중의 배당’(Double dividend)¹⁾ 향유

2. 일본 ‘미래개척전략’의 3대 집중투자분야와 12대 중점프로젝트

3대 집중투자분야	12대 중점프로젝트
(1) ‘저탄소혁명’ (환경·자원·에너지 분야)	① 태양광발전·에너지절약 세계 1위 플랜
	② 에코카 보급속도 세계 1위 플랜
	③ 저탄소 교통·도시혁명
	④ 자원대국 실현 플랜
(2) ‘건강·장수’ (의료·노인수발서비스 분야)	⑤ 노인수발기능 강화 플랜
	⑥ 지역의료 강화 및 건강산업 창출 플랜
	⑦ 의료·노인수발복지 신기술 이노베이션
(3) ‘매력 발휘’ (농림수산업·소프트파워·관광·인재·IT 분야)	⑧ 농림어업 잠재력 발휘 플랜
	⑨ 소프트파워 발휘 플랜
	⑩ 관광대국 실현
	⑪ 인재 강화 및 기술력 발휘 플랜
	⑫ IT저력 발휘 전략

1 ‘저탄소혁명’(환경·자원·에너지 분야)

- 세계 최고의 환경·에너지절약 국가로서 태양광 발전, 축전지, 연료전지, 그린 가전제품 등 주요 저탄소기술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
- 새로운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 실용화함으로써 혁신적 저탄소사회 실현
- 집약형 도시구조의 구축과 물류 효율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부하가 작은 저탄소형도시를 구축하고,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 제시
- 3R 즉, 폐기물의 배출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생이용(Recycle)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순환형사회 구축
- 수처리 기술개발, 원자력산업 기반 강화 등을 통한 자원대국 일본 구현

1) ‘이중의 배당’(Double dividend) 이란 용어는 OECD의 보고서 「Going for Growth」(2008)에서 경제위기하에서도 장기적 경제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됨.

[프로젝트 1] 태양광발전 · 에너지절약 세계 1위 플랜

- 최종 에너지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제고 : 약 10%(2005년) → 약 20%(2020년)
- 태양광발전의 도입 촉진 : 태양광발전 용량을 2020년까지 현재의 20배로 확장 목표 설정,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에 대한 전력회사의 매입가격을 현재의 2배로 상향 조정, 공공건축물(공공청사와 공립학교 등 약 5만 4천 개소) · 공공시설(도로관련시설, 철도, 공항, 등대, 국립공원 등) ·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 도입 촉진
- 건축물의 무배출(Zero Emission)화 촉진 : 2030년까지는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의 Zero Emission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전국 5만 4천 개의 공공건축물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민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진단 및 개수 촉진, 에너지절약형 주택 확대 (전체 주택스톡 중 에너지절약형 주택비율을 2019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
- 에너지절약형 기기의 보급 촉진 : ‘에코 포인트’ 제도²⁾의 활용 등을 통한 친환경 가전 제품 보급 촉진, 그린 IT 추진(2030년까지 일본 국내 절약에너지의 약 1/3을 그린 IT 가 실현), 국립공원 등의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
- 환경 ·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 Smart Grid ·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혁신적 축전지 · 태양광발전 · 초전도 · 나노테크 · 그린 IT · 혁신적 재료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세계적 거점 긴급 정비, 해상 풍력발전기술 · 소수력발전기술 개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작물을 원료로 하는 ‘제2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연료전지 · 초전도 · 태양전지 ·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미국과 공동 연구 · 실증 · 표준화 협력 추진
- 탄소성적표지(Carbon Footprint) 제도 확대
- ‘차세대 에너지파크’(신재생에너지시설의 거점지역)를 비롯한 미래형 사회시스템 모델 구축

[프로젝트 2] 에코카 보급속도 세계 1위 플랜

- 차세대 자동차 등 에코카 수요 확대 : 환경대응차의 대체 구입 촉진 등을 통하여 차세대 자동차 보급 속도의 세계 1위 목표 설정, 공용차(국가, 지자체 등)의 환경대응차 대체 촉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전기자동차 ·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

2) 친환경 가전제품 구입 시에 가격의 일부(대체로 5~10%)를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함.

차의 모델사업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충전인프라 정비 등 추진

- 차세대자동차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세대자동차의 규격화·국제표준화 추진, 차세대 축전지·고성능배터리 등 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 2020년의 차세대자동차 시장수요 전망: 약 5조 엔, 고용효과: 약 6만 명)

[프로젝트 3] 저탄소 교통·도시혁명

- 저탄소 교통수단의 세계 최단 개발 및 최단 보급: 초전도 리니어는 2016년까지 실용화 기술 확립, FGT(Free Gauge Train)는 2010년 여름까지 실용화, 무가선(無架線) LRV(축전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형 차량)는 2012년까지 실용화, 고효율선박(CO₂ 30% 삭감 목표) 기술개발 및 세계보급 촉진(※ 2020년의 고효율선박 시장규모: 3~4조 엔, 고용효과: 약 13만 명), 선박판 아이들링 스톱(Idling Stop)³⁾ 추진,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저연비, 저소음) 기술개발 및 국내보급 추진, 위성항법 도입 촉진으로 항공기의 CO₂ 배출 및 연료소비 절감
- 저탄소 교통인프라 집중 정비: ITS에 의한 교통류대책 강화 및 기술개발·국제표준화, 3대 도시권 환상도로 정비, 미싱링크 조기 해소, 슈퍼 중추항만의 기능 강화(철도 및 내항해운과의 연계), 모달시프트 대책, 신간선 정비, 세계 최첨단 철도시스템의 해외 전개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촉진: 굴절버스 도입 촉진, 지방버스·지방철도·도서연결항로 등 확충
- 콤팩트하면서 친인간·친환경적인 도시·지역 만들기: 보행공간 및 자전거 이용환경 정비, 열섬대책(흙포장, 옥상·벽면 녹화 등), 바이오매스 등 지역특성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환경모델도시’⁴⁾·‘환경 커뮤니티 비즈니스’⁵⁾ 등의 시책 추진, 생활지원기능(병원, 보육시설, 행정창구 등) 및 상업기능의 역·중심시가지 집적·집약화, 도심거주 촉진 등을 통하여 친인간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생활 실현

3) 접안 중인 선박의 필요전력을 육지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함.

4)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구상 내용을 평가하여 환경모델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의 실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13개 도시가 환경모델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5) 지역 기업, 시민단체 등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 폐기물 재활용, 자전거 공동이용, 환경학습 등이 대표적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함.

[프로젝트 4] 자원대국 실현플랜

- 희귀금속(Rare Metal) 포함 제품의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도시광산 개발) : 향후 3년 동안 폐휴대폰 1억 대를 회수하여 3.2톤의 금과 희귀금속 회수
-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도시유전 개발), 선박 리사이클링에 의한 철강 확보 및 저탄소 공헌(※대형 유조선 한 척의 리사이클로 얻어지는 철강은 약 3만 5천 톤)
-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산업 재생프로젝트 : CO₂ 흡수원인 산림의 간벌, 임도 정비, 주택·공공시설에 목재 이용, 목질 바이오매스의 연료이용 등 추진(2020년까지 국산 목재공급량 두 배 증가 목표)
-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에 진입(※ 물 비즈니스 시장규모: 2005년 60조 엔→2025년 100조 엔)
- 원자력산업의 기반 강화 및 국제적 전개 : 향후 총 15기(2018년까지 9기)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추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세계시장 진입 및 선진적 원자력발전기술(차세대 경수로, 고속중식로 등)의 조기 실용화
- 해양자원의 탐사·개발 촉진(해저 열수광상,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2 '건강·장수'(의료·노인수발서비스 분야)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장수분야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 높은 사회 실현 목표
- 의료·노인수발서비스의 시장규모는 현재 약 41조 엔에서 2025년에는 90조 엔까지, 고용규모는 385만 명에서 2025년 670만 명까지 증대 전망
- 탄탄한 내수를 배경으로 고부가가치의 의료·건강서비스, 혁신적 의료기술·의약품·의료기기를 산출하고, 의료·수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 확보

[프로젝트 5] 노인수발기능 강화플랜

- 노인수발기반 정비 : 노인수발인력의 처우 개선, 지역상담지원체제의 정비(※ 향후 3년간 30만 명, 2020년까지는 50~90만 명의 고용 창출 기대. 현재의 수발 직원수는 약 130만 명)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위한 인프라 중점 정비 : 1일 이용자 5천 명 이상 역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00% 배리어 프리화 추진 등

[프로젝트 6] 지역의료 강화 및 건강산업 창출 플랜

- 지역의료 재생 : 2차 의료권(전국 348개)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의료재생계획 책정, 의료기능 연계를 위한 시설·설비·IT기반 집중 정비,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사 파견기능 강화,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2,500베드→3,000베드), 구명구급센터 확충(214개소→237개소)
- 의료거점병원 강화 : 재해거점병원·사회복지시설의 내진구조화, 병원·노인홈의 토사재해 위험 해소, 지역의료의 최후 파수꾼으로서 대학병원 기능 강화
- 지역종합건강서비스산업 창출 지원(2020년까지 24조 엔의 시장 창출)

[프로젝트 7] 의료·노인수발복지 신기술 이노베이션

- 암 등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개발·실용화 국가프로젝트 추진
- 의약품 등의 승인검사·안전대책 체제 강화
- 세계 톱 레벨의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 생활지원로봇 등의 실용화(※로봇시장 예측: 2025년 6.2조 엔)
- 의료 IT화 추진 : 처방전의 완전 온라인화, 전자카르테 도입, 원격의료 추진, 고속 브로드밴드망 정비를 통한 지역의료 연계 추진

3 '매력 발휘'(농림수산업 · 소프트파워 · 관광 · 인재 · IT 분야)

- 역사, 전통, 문화, 국민성 등에 내재되어 있는 '저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적 ·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세계인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 있는 국가 형성
- 농림수산업 · 농산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개척하여 농산어촌을 고용 및 활력 창출의 원천이 되게 하고, 식료 자급률 강화
-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패션, 전통문화 등 소프트파워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Cool Japan'이 세계적 트렌드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함
- 2020년까지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수 2천만 명의 '관광입국' 실현
- 지속적 국가 성장력 창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재개발 및 안정적 고용기반 구축
- 세계 최첨단수준에 있는 IT의 활용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낳고, 성장력이 성장력을 낳는 호(好)순환 실현

[프로젝트 8] 농림어업 잠재력 발휘플랜

- 그린과 물의 환경기술 혁명 : 농림수산물로부터 신소재 등을 제조하는 '바이오매스 신산업창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식물공장 · 곤충공장 프로젝트', '미이용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경작방기지 해소 프로젝트', '농산어촌 IT활용 종합화 프로젝트', '식품생산 그린 프로젝트' 등 추진(※ 식물공장 : 향후 3년 이내에 현재의 5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야채 생산코스트는 30% 절감)

[프로젝트 9] 소프트파워 발휘플랜

- 소프트파워의 해외전개 지원(※ 수출액 : 2,500억 엔 → 2조 5천억 엔)
- 차세대 저작권거래지원시스템 정비(※ 2020년까지 경제효과 0.8조 엔, 고용효과 10만 명)
- 지역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 식문화 · 지역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 강화, 지역 영상 콘텐츠의 제작 · 활용 · 홍보 지원,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활성화, 문화자원의 아카이브화 추진(※2020년까지 경제효과 1조 엔 이상, 고용효과 10만 명 이상)

[프로젝트 10] 관광대국 실현

-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세계 유수의 관광지 형성 : 2박 3일 이상의 체재형 관광 촉진을 위한 관광권 정비, 관광지 경관 형성 및 역사마을가꾸기 추진, 관광지 내 전주 지중화, 유급휴가 및 휴가 분산화 촉진
- 세계 각지로부터의 접근성 발본적 개선 : 비자심사체제 정비, 입국심사 대기시간 대폭 단축(나리타 28분 → 15분, 간사이 36분 → 20분), 하네다·나리타 공항 용량 확대, 간사이·추부 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 항공자유화 추진, 도쿄역에서 나리타공항 및 하네다공항 접근성 개선, IC승차권의 국제 상호 이용화, Regional Jet 도입 촉진
- 일본 브랜드의 홍보강화를 통한 수요확대 : 중국·한국 등 중점 12시장에 대한 관광객 유치사업 강화, 국제회의 등의 유치·개최, 국제비즈니스 거점지역 정비
- 방일 외국인여행자에 대한 외국어대응 강화 : 자동음성번역기술의 관광지 적용, 대중교통기관 등에 중국어·한국어 등 외국어 표시, 숙박시설의 외국인 대응체제 정비

※ 2020년까지 외국인관광객 2천만 명 달성 시의 기대효과 : 시장규모 4조 3천억 엔(파급효과 10.4조 엔), 고용창출 39만 명(파급효과 85만 명)

[프로젝트 11] 인재 강화 및 기술력 발휘 플랜

- 초·중학교의 수학·과학 교육 발본적 강화 : 수학·과학 교육지원 외부인재의 적극적 활용, 학교교육과 산업계 등 학교 외 교육자원 연계, 교육설비 정비, 최첨단 환경기술 전시 등 정보거점 정비
- 세계 톱 레벨의 연구환경 실현 : 현재 60%에 불과한 박사취득자의 취업률 대폭 개선, 세계 톱 레벨의 우수연구자 초빙, 해외 저명기관과의 연구협력, 젊은 연구자 양성, 세계 최첨단의 연구개발 인프라 쇄신(축전지·태양전지·나노테크 등의 세계적 거점 정비 등), 노후 대학설비의 고도화 추진, 산학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규모 대폭 확대, 해외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및 활용
- 초소형 위성시스템 개발·활용을 통한 신시장 창조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창출 및 대학 연구개발 지원(※ 향후 3년간 5,500명의 고용 창출, 1,600억 엔의 파급효과 기대)
- 지역산업구조 변혁 : 산학관 공동연구 지역거점 정비, 중소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실

용화·판로개척 지원(제조업 기반 20기술⁶⁾과 차세대산업 확립)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인재 육성: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직업안정소 기능 강화, 훈련기간 중 생활보장, 이직자의 거주안정 확보,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한 장학금 확충, Job Cafe를 통한 구직·구인 네트워크의 전국적 전개

[프로젝트 12] IT저력 발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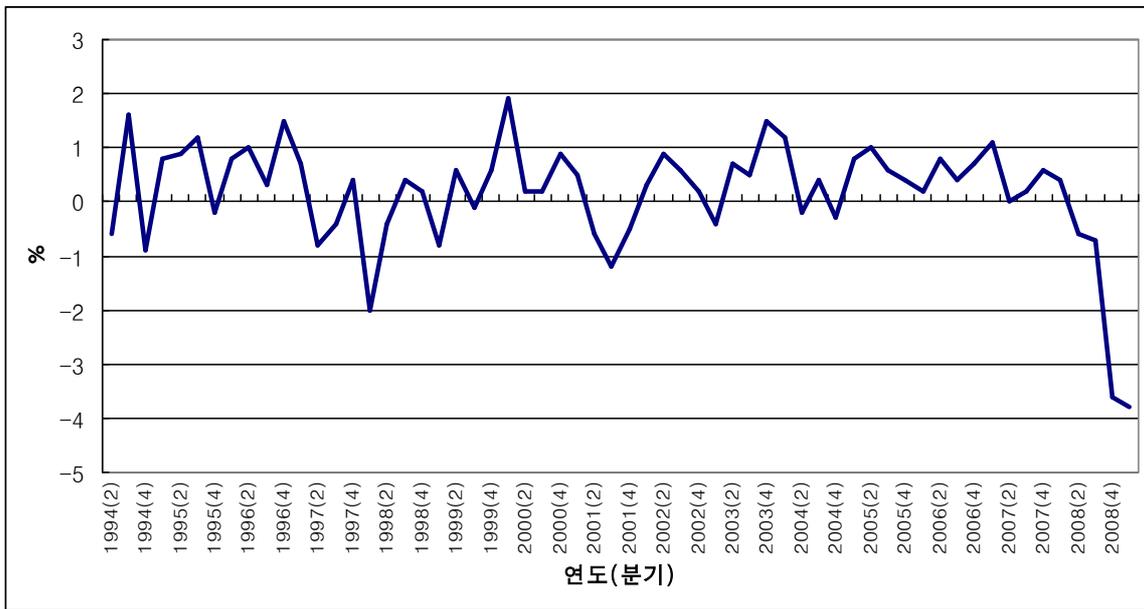
- ‘그린 IT’로 세계를 견인: 에너지절약형 반도체와 파워 디바이스 등 기술개발, 친환경 가전제품 보급 촉진, 차세대 정보기반인 Cloud Computing 실현 추구
- IT를 활용한 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앞으로 각종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IT·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 콘텐츠 수집·유통 및 저작권 제어 기술개발,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비, 업종횡단적 정보기반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3년 내 1만 개 이상 기업이용 추진, 소프트웨어 서비스형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을 정비하여 향후 3년 내 100만 개 이상 기업이용 추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 IT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유비쿼터스 기술의 집중투입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조성 및 매력 있는 지역상품의 홍보 강화
- IT에 의한 아시아 지식경제권 구축: 아시아지역의 고도 IT인재 육성, 전자상거래 법제도 구축 지원, 일본형 IT 모델시스템 구축
- 전자행정 가속화: 국민 개개인이 자신과 관계된 행정정보를 휴대폰이나 PC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전자사서함’ 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전자화 추진, 관민공동 이용이 가능한 Cloud Data Center 구축, 국가·지자체의 시스템 연계 및 공동이용
- 최고품질의 IT 사회기반 정비: 정보시스템의 신뢰도 제고, 시큐리티기능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법·유해정보 대책 등 추진
- 고도 IT 인재의 육성·강화: 대학 간·산업 간 네트워크 기능 강화, 산학관 연계
- 선진적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브로드밴드 제로지역(지역 내에서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곳이 전혀 없는 지역) 해소, 휴대폰 난청지역 해소, 지상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화(2011년 7월에 완전이행),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남은 전파의 활

6) 「중소기업 제조기반기술 고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가지 기술로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금형, 전자부품·디바이스 실장, 분말야금, 용사, 단조, 동력전달, 부재결합, 주조, 금속프레스가공, 위치결정, 절삭가공, 직염가공, 고기능 화학합성, 열처리, 용접, 도금, 발효, 진공유지 기술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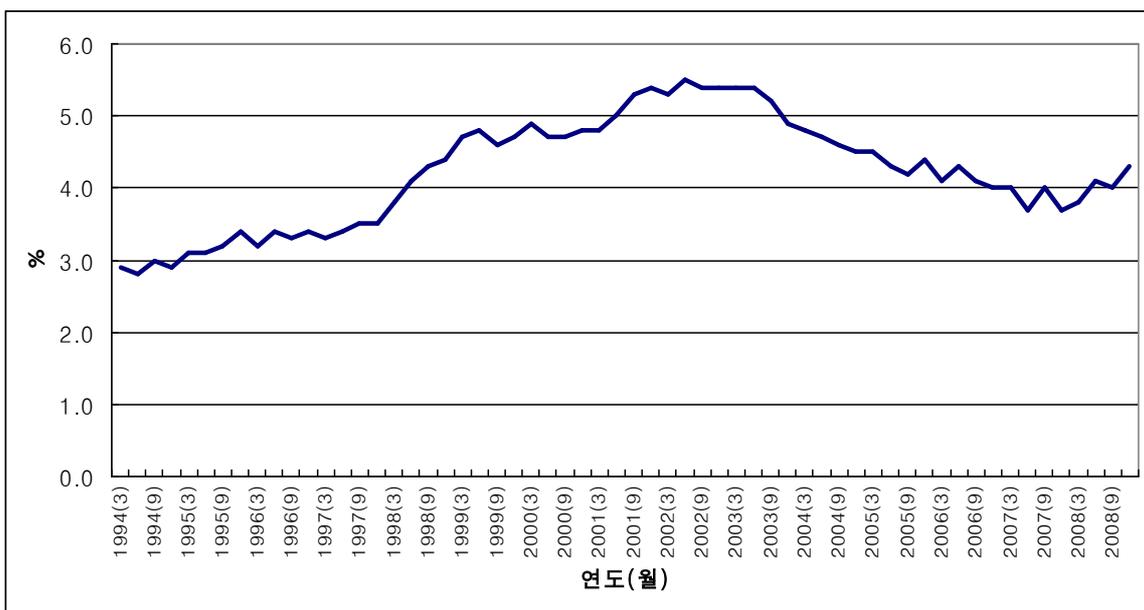
용 및 새로운 주파수 할당, 혁신네트워크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 교육·의료 IT인프라의 발본적 정비 및 디지털교육 추진: 2010년까지 교원 1명당 1대, 아동 3.6명당 1대의 컴퓨터 보급, 교내 LAN 정비율 100% 달성, 모든 교실에 디지털 텔레비전 장착, 업무효율화를 위한 ASP·SaaS 기반 구축, 교육콘텐츠의 충실화, 교사의 디지털활용 지도력 제고, 지역의 건강정보 기반 정비

[그림 1] 일본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실질)



[그림 2] 일본의 완전실업률 추이(계절조정치)



3. 시사점

- 일본의 ‘미래개척전략’은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맥락을 같이함
 - 2008년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설정한 바, 이는 일본의 ‘미래개척전략’보다 8개월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발주자임을 증명

- 일본의 ‘미래개척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기회선점 및 치밀한 준비와 실천 대공조 필요

- 한국, 일본 양국이 공통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문제인식 공유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환경·자원·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므로 녹색성장 실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여 창조적 경쟁력 강화 필요
- 녹색산업 이외에 의료·노인수발산업, 농림수산업, 문화산업(소프트파워), 관광산업, IT산업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잠재력 확인 및 미래 성장동력화 방안 적극 검토
- 우리나라의 각계각층, 각 기관, 각 지역 등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한국형 미래변혁 전략을 치밀하게 조속히 정립하고, ‘국민적 대공조’를 통해 신속 추진 필요. 미래기회 선점, 국가위상 업그레이드, 세계 표준 모델 정립 및 확산 → 향후 30년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함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이동우 수도권전략센터장 (dwlee@krihs.re.kr, 031-380-0198)